



[라이프]
홀카페도 '편리미엄'
캡슐커피 매출
고공행진
너



Life

[바이오]
셀트리온
국내외 학회서
성과 입증
L2



서울 확진자 250명 넘으면 방역 붕괴... 팬데믹 대비해야

(1일)

확진자에 따른 대응일 시물레이션
400명 돌파시 6일이면 한계 도달
자치구 비상대응체계 사전 준비 필요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50명 이상 발생하면 현행 방역체제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내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른 대응 가능일을 시물레이션했다.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규 환자가 200명이 넘을 경우를 '긴급 상황 선언 기준(잠정)'으로 설정하고 서울시 보유 병상, 퇴원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방역 체계가 붕괴하는 시점을 가늠해 봤다.

서울시 확진자 발생에 따른 현 체제로 대응 가능성

일 확진자 발생 수	한계도달일	대응가능성	회복예상기간	비고
200명	22일	한시적 대응 (위기)	정점 도달기간의 2~3배 예상 (40~90일)	자치구 동원 불필요
250명	15일	대응 불가 (비상)		자치구 동원 필요
400명	6일	대응 불가 (초비상)		(국내적 팬데믹 상황)

자료/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상 실험 결과 하루 확진자가 200명 이상 발생하는 '위기' 단계에서는 현 방역 시스템으로 22일간 한시적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환자가 250명 넘게 나오는 '비상' 단계에서는 지금 방역 체계로 15일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 사실상 이 시점부터 대응이 불

가하다고 시는 판단했다. 일일 확진자가 400명을 돌파하는 '초비상' 단계에서는 6일이면 한계에 도달했다.

대응 가능일 추정 시물레이션 조건은 ▲신규 확진자 중 생활치료센터 입소 비율 70%(확진자 중 30%는 병원 입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퇴원 소요기간 10

일(중대본 기준) ▲치료센터 입소자 대비 퇴원 비율 70% ▲최대 확진자 발생 지속일 21일 ▲정점 도달 후 감소율 10%씩 ▲서울시 보유 병상 4113개(의료 기관 1158개, 생활치료센터 2955개) ▲기 확진자 점유 병상 900개(가정) ▲의료 기관 보유 가능 병상 1158개였다.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병상 중 2000개가 소진되면 '위기' 경보를 발령한다. 시는 "향후 확진자 추이 예측이 어렵고 폭증시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자치구 비상대응체계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가 확보한 병상 가운데 3000개가 채워지면 '비상' 단계를 선포한다. 시는 "언제든 일 신규 환자가 300명 이상 폭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 자

치구를 포함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시는 2~3일 내 자치구별 생활치료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원하고 3주 이상 대응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신규 확진자가 400명 이상 나오는 '초비상' 단계에서는 누적 환자가 1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 1만병상 이상이 사용되면 '자가격리치료'에 돌입한다.

시는 "국내에서 팬데믹(통제 가능한 상태를 벗어난 상황) 발생 시 정점도달 기간은 3주 이상으로 예상되며, 회복 기간은 그 2~3배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국내에서 감염병 대유행 때 40~90일 이상 대응 가능한 방역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배출가스 5등급車, 내달부터 수도권 못 달린다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서울 전 지역서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8일 밝혔다.

전국 어느 곳에 등록된 차량이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 금지 시간은 토요일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약 146만대의 노후 차량이 있다.

서울시는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연말까지 단속을 미뤄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년 3월 말까지 단속 유예가 적용된다.

경기도는 2021년 3월 말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을 단속하지 않는다.

이번 5등급 차량 수도권 전역 운행 제한은 올해 3월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겨울(작년 12월~올해 3월)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했으나, 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사대문 안에서만 시행했다.

다만 운행 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서울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주기로 했다.

시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실시되는 4개월간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회원 15만여명 중 해당 기간 주행 거리가 서울 지역 평균의 반인 1850km 이하인 경우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를 지급한다.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시는 배출가스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단속을 확대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점검도 발주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장만 하던 것을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장으로 전면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31%)을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부문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한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공공개발사업지구 녹색건축만 허용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기후위기 대응

고양시가 탄소저감대책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공공개발사업 인-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고양 전체를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주택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은 고양시 대규모 도시개발 및 공공주택단지를 신축할 경우 '고양시 녹색건축 조성 조례 및 경

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일정 등급 이상을 꼭 반영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사업 인-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다.

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환경정책을 수립,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2.8%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는 물론 분기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안성기 기자 ask9990@

정하영 김포시장, '2020 아시아 문화경쟁력진흥대상' 수상

평화통일 조성 노력 공로 인정

정하영 김포시장이 아시아문화경쟁력진흥원이 주최하는 '2020 아시아 문화경쟁력진흥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아시아문화경쟁력진흥대상은 아시아 국가 간 우호증대와 문화협력을 통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아시아의 경제, 사회, 문화, 정

치, 지자체, 교류, 지역개발 부문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된다.

정 시장은 '대한민국 평화선도도시 김포'를 표방하며 ▲평화교류팀 신설 ▲남북평화교류를 위한 조례 제정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시(市)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 건의 등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성기 기자



퇴계로 공간재편 사업 전(위)과 후. /서울시

퇴계로 2.6km구간, '보행천국' 탈바꿈

3개 차로 줄이고 보도 넓혀

좁은 보행로에 짐을 싣고 내리는 상인들이 많이 걷기 불편했던 퇴계로가 보행자 친화거리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퇴계로2가~광희동사거리 1.5km 구간 공간재편 사업을 이달 말 마무리한다고 8일 밝혔다.

2018년 1단계로 공사를 마친 회현역~퇴계로 1.1km 구간을 합하면 퇴계로 2.6km 전 구간이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완성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퇴계로 차로를 왕복 6~8차로에서 3개 차로를 줄이고 보도는 기존 폭 2~3m에서 6~7m로 넓혔다.

상가와 애견용품점 등 상권이 형성된 퇴계로 특성을 감안해 주변 상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조업정차공간 8곳과 이륜차 전용 하역공간 1곳을 만들었다.

자전거도로도 전 구간에 신설했다. 자전거·공유교통인프라를 넓히기 위해 따름이 대여소 4곳과 나눔카 대여지점 3곳을 새로 조성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1월 9일 (월) 음력 : 9월 24일

수도권 날씨 -1~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05 | 해질 / 17:26

지역별 날씨: 연천 -5/9, 동두천 -3/10, 가평 -4/10, 파주 -5/10, 서울 -1/9, 양평 -2/10, 인천 2/10, 수원 1/9, 용인 1/9, 평택 -3/1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